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①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한국고판화학회(회장 한선화)는 2월 14-19일 중국 사찰과 유적지 박물관 등을 답사했다.

행사에서는 >운거사 >중국국가도서관 >중국인쇄박물관 >수도도서관 >문진조 판박물관 >영보재 >자금성 무영전 >국 가박물관(이상 베이징)과 >석가장 비로사 >통흥사(이상 허베이성) >무강현의 무강 연화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이번 답사는 중국 고판화 관련 유적지와 저명한 관련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 자료 수집과 한·중 고판화 연구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안 스님(해인사박물관장), 성안 스님(해인사대장경보존국장), 박도화 교수(동국대), 강순애 교수(한성대), 김경혜 교수(영남이공대) 등 고판화 관련 학자와 판화·민화·사진작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주심해 교수(수도도서관 부관장), 마문대 연구관(수도도서관), 소동발 교수(북경대), 강심 관장(문진조판박물관), 보송년 교수(중양미술학원), 왕옥빙 관장(무강연화박물관) 등이 참여했다.

고판화학회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해인사박물관,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 고려대 장경연구소,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등 고판화 관련 연구기관과 미술사, 서지학, 불교학, 민속학, 박물관학 등 관련 학자 60여 명이 참여하여 지난해 발족한 학회이다.

고판화 인쇄문화 보고-북경 운거사

북경은 고판화 관련 인쇄문화 자료가 많이 모인 지역이다. 운거사, 중국 국가도서관, 자금성 무영전, 수도도서관, 유리창 영보재 등 고판화·고인쇄 관련 자료가 풍부하다. 2005년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이루어진 국제학술회의와 2006년 고판화박물관에서 주최한 한·중 고판화 국제학술회의를 인연으로 한·중 학자들과의 교류가 주로 북경에서 긴밀히 이뤄져 왔다.

제1차 해외답사인 이번 행사가 북경지역과 석가장 무강현 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이런 연유이다.

일행은 북경 수도공원에 도착해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 첫 번째 방문지인 운거사로 향했다.

운거사(云居寺)는 베이징 서남쪽 판산구(房山区)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북경시 중심에서 70km 떨어진 바йда이산(또는 石經山 스지산) 서남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사찰의 전체 면적은 7만여 평방미터이다.

운거사로부터, 석경산 경경동까지는 당나라 요나라 탑군(塔群)들이 어우러진 중국 불교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곳이다. 운거사는 불교 경전을 봉안한 곳으로 사찰에는 삼절(三絶)이라고 부르는 석경(石經)·지경(紙經)·목판경(木板經)이 소장돼 있다. 문화재가 많은 까닭에 운거사는 1961년 국무원으로부터 전국중요 문화재로 지정됐다. 1992년에는 '세계 최고의 베이징 관광지(北京旅游世界之最)'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세계기독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보존이 잘된 석가 경전을 보유한 사찰로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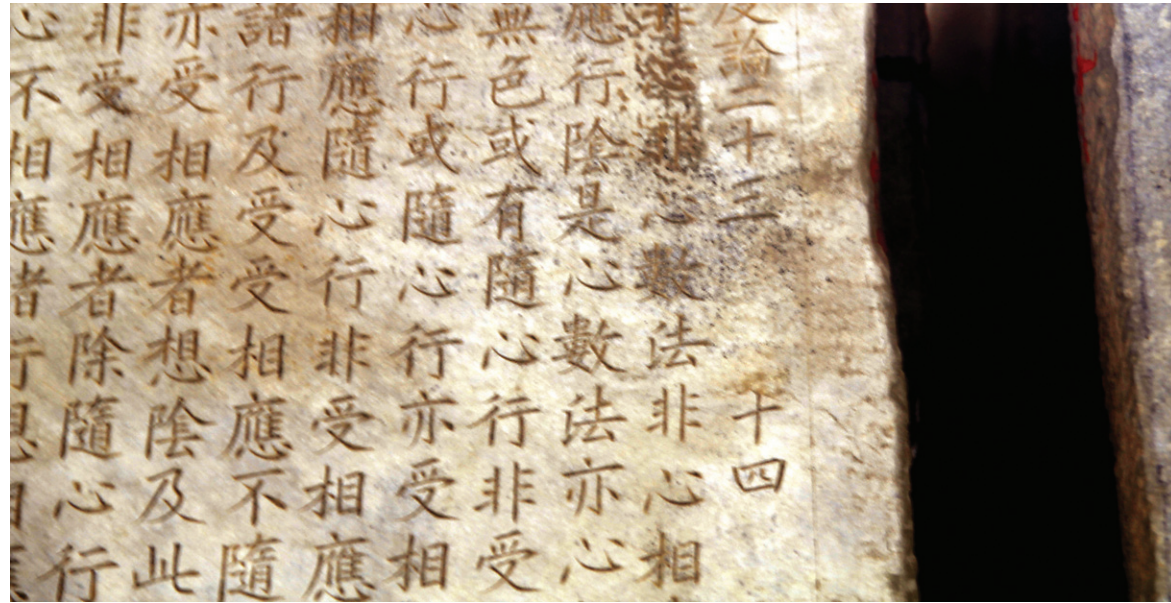
일행이 탄 버스는 운거사를 향해 산골자기를 굽이굽이 누볐다. 가는 길에 다른 사찰의 이정표는 보이는데 운거사 이정표는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어 대담은 제각각이었다. 공황에서 운거사까지 1시간여 먼 도착할 것이라던 생각이 2시간을 지나 3시간을 넘어갔다. 일행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원래 답사 마지막날에 운거사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첫째날로 바꾼 일정이었다. 만약 답사 마지막 날에 운거사를 찾았다면 공황 가는 시간으로 인해 일정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을 것을 생각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갑자기 차내에서 기쁜 함성이 들렸다. 운거사 이정표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천년 고찰 속에 불은(佛恩)이 가득한 경전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든 수행의 과정이 기다리듯 일행은 마음 졸이는 시험과정을 통과하고 운거사에 도착했다.

운거사는 평일이라 그런지 관람객이나 참배객 없이 우리 답사 일행이 전부였다. 운거사 산문 현판도 다른 중국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불교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후 조박초 박사의 글씨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현대불교의 중흥조로서의 조박초 박사의 원력이 새삼 느껴지면서, 근대 중국에 끼여가던 불교의 불씨를 다시 지켰던 거사불교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일행은 운거사 삼절 가운데 먼저 석경이 보관된 석경지공으로 향했다. 운거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합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석경지공에 가는 길이 낯설지 않음을 실감했다.

홈페이지에는 경내 지도 위에 구름을 타고 있는 수행자를 따라 가던 경내의 삼절과 주요 유물들을 순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이 사전에 운거사 유물에 대한 이해와 위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를 보면서 한국보다 문화유적을 통한 관광개발이 훨씬 늦은 중국이 우리 보다 한발 앞서, 관람객이 이용자 중심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천여 년간 3천 5백만자 '방산석경' 새긴 불심에 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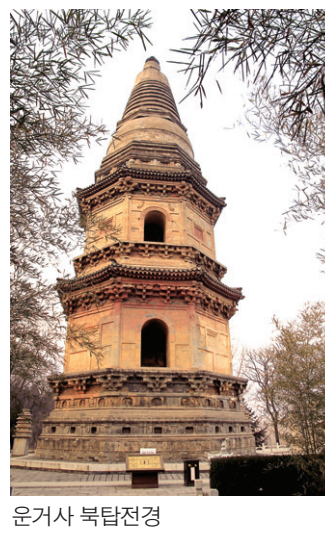
북경 운거사에 봉안된 중국 최대의 석각불교대장경 '방산석경'의 일부분. 고려 천태종 해월 스님이 계승하기도 했다.



석경, 지경, 목판경을 집대성해 봉안하고 있는 운거사 산문

수, 정완 스님 원력 석경 조각 시작 몽골·티베트·고려인 등 불사 동참 크고 작은 경판 1만 4천여 개

장경동과 석경지공에 나눠 봉안 훼손 우려 1999년 일부 다시 매장 석굴 보수중, 석경 친견 못해 섭섭



운거사 북탑전경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학술답사에는 고판화 관련 학자와 판화·민화·사진작가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는 점이 새삼스럽다.

석각불교대장경 방산석경

방산석경(房山石經)이 보관돼 있는 석경지공에서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 이는 방산석경을 발원했던 정완 스님이다. 석경지공 입구에는 정완 스님의 형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불탑이 세상에 끊이지 않고 이어 지기를 바랐던 높은 뜻을 기리고 있다. 방산석경은 중국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석각불교대장경'이다.

이 석경은 605년에 조각하기 시작했다. 시작한 사람은 수대 말기의 고승 정완이다. 북주 무제의 법난(法難, 국왕이나 정치권력의 불교박해나 탄압)으로 절망한 정완은 정법(正法)을 후손들에게 꼭 전해야만 한

다는 일념으로 석경을 새기기로 마음먹고, 수나라 대엽 원년(605)에 석경을 만들기 적당한 정석이 풍부하고, 석굴을 파기 좋은 방산 석경산 밑에 운거사를 건립하고, 석경 새기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각종 사업은 수 당 요 금 원 명의 6대를 거쳐 1039년 동안 지속됐다.

현재 발견된 완벽한 크고 작은 경판은 1만4278개로 불경 1122부 3572권, 새겨진 글자의 숫자는 3500만여 자에 이른다. 방산석경은 두 곳에 나누어 보존돼 있다. 4196개는 석경산의 9개 장경동에, 1만82개는 석경지공(石經地宮)에 보관돼 있다. 석경을 새겨 불탑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정완 스님의 원력은 한쪽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인 고려인 등이 시대

와 상황에 따라 석경 작업에 직접 동참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면서 아시아인들의 원력으로 승화됐다. 원대에 이르러 작업이 단절될 위기에 놓이자 고려 천태종 해월(慧月) 스님에 의해 계승됐다. 방산석경 결집은 민족·국경을 초월해 이룩된 아시아의 문화유산이다. 방산석경에는 전화로 불타버린 거란대장경 내용을 요·금대에 새겨진 석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 불교 정치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에서도 풍부한 역사재료를 간직하고 있다. 또, 서예 연구에도 중요한 예술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로 일컬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운거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50년대 말에는 3년간의 시간

을 이용해 석경을 발굴·정리했다. 또, 전문가를 조직해 방산석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방산석경영인본)과 (방산석경제기회판) 등 저작물을 출간했다. 일부의 석경은 훼손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1999년 9월 9일 9시 9분에 다시 매장했다. 현재 석경산의 석굴들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석굴안의 석경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운거사 삼절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지경이 전시되고 있는 실정인 경관(舌血眞經館)으로 발굴기를 올렸다.

글=한선화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박도화(고판화박물관)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자루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개/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다라니 福 지갑

평생부자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을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개)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중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림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